

말을 듣고 도미를 불러 정절을 지키는 여인은 없을 것이라 하니, 도미는 자기 아내는 절의를 지킬 것이라 하였다.

왕은 이를 시험하려고 도미에게 사건을 만들어 붙잡아 두고는 가까운 신하 한 사람을 왕으로 꾸며 도미의 집으로 보냈다. 왕의 차림으로 온 신하는 도미와 내기에서 이겨 그녀를 궁인으로 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녀의 몸을 취하려 하였다. 도미의 아내는 가짜 왕을 안심시켜 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에 계집종을 단장시켜 모시게 하였다.

왕은 뒤에 그녀가 속인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를 애매한 죄로 다스려 그의 두 눈동자를 빼고, 그를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실은 다음, 물위에 띄워 놓았다. 그리고는 도미의 아내를 불러들여 강제로 그의 몸을 취하려 하니, 도미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되어 능히 스스로 살지 못하게 되었아온데, 항차 대왕을 모시라는 명을 어찌 감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월경으로 온 몸이 더럽게 되었아오니, 청하옵건대 다른 날을 기다려 깨끗하게 목욕을 한 뒤에 오겠습니다.”

왕은 그 말을 믿고, 이를 허락하였다.

도미의 아내는 강가로 왔으나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그 때 갑자기 작은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왔다. 그녀는 이 배를 타고 천성도(泉城島)에 이르러 도미를 만났는데, 아직 그가 죽지 않았으므로 함께 풀뿌리를 캐서 먹으며 연명하였다. 그 후 도미 부부는 배를 타고 고구려로 가서 일생을 마쳤다.²⁾

16 『(東國史略)』, 『(大東野乘)』
 『(權鬘)』 『(海東雜錄)』, 19 『(无憫翁)』 『(歷史類編)』, 14 『(三綱行實圖)』 가
 『(都命應)』³⁾
 『(大同小異)』 가

나. 구전 자료

가 8, 6, 2, 4)

2) 『三國史記』 48 列傳 8. (: , 1969), 753 .
 3) 『(: , 1991)』, “ ”, 8(: 1988) 가
 가 가, (大同小異)

옛날 백제 시대에 ‘전마들’에서는 군용마(軍用馬)를 길렀기 때문에 왕들이 자주 순시하러 왔다는 거요. 백제 어느 왕이 목장을 둘러보러 왔다가 도미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구서, 도미를 불러서 마굿간 짓는 것을 청부를 주었다. 그러구서 왕의 위력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일을 늦추게 만들어서 기한이 늦으니까, 왕명을 거역했다고 하여, 눈을 빼서 맹인을 만들어 가지구서, 빈 배에다 태워서 떠내려보냈다.

그러구서 도미 아내를 불러서, “네 남편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 너 오늘부터 내게 시침(侍寢)을 해라.” 하니까, 도미의 아내가 얼굴에 화색을 띄우고 아주 좋아하면서, “내가 일개 목수의 아내인데, 왕이 나에게 시침을 하라고 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인디, 왜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진 뒤에 목욕재계하고 와서 모시겄소.” 이렇게 흔연하게 대답을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왕이 넘어갔단 말여. 그래서 오히려 상금을 두둑히 주면서, “너 그럼, 며칠 후에 들어오너라.” 해서 보냈거든.

그 부인은 그날 저녁에 상사봉으로 올라가서, 지금 팔각정이 있는 디여. 거기 올라가 보면, 도미항에서부터 주욱 물길이 다 보이지. 거기서 물길을 다 보구서, 자기 남편이 빈배에 떠내려갔으면 워디로 갔겠는가, 물길을 보고 통곡을 하였어. 그래서 거기가 ‘상사봉(相思峰)’이라는 이름이 났다는 거여. 그렇게 하구서, 그날 저녁에 빈배를 훔쳐 타구서 달아났어. 그런데 다행이 원산도에 내렸단 말여. 거기서 남편을 만나 가지고서, 고구려로 달아났다 그런 얘가지요.⁵⁾

3

200 (水

島)가 가

가 가 가 『

』

.6)

5) : 1996. 8. 3. 6 30
 : (, 83 , ,)
 : 2 101
 :

6) 2 () (, 80)
 (, 1983), 375~378 (,

가 , ‘ ; ‘ ; ‘ ’ . 가

(氷島) ‘ (美人島)’ , 『

(保寧邑誌)』 (忠清水營) (水營) ,

(想思峰)

‘ ’ , 15

.7)

가 220 가 .

가

‘ (想思峰)’ . ,

‘ [戰馬坪]’ ,

(軍用馬)

(巡幸)

1~2 , 100

‘ ’ ,

‘ ’ ,

(罷漏)

‘ ’ 가 ‘ ’가 .

‘ ’ ,

가 가

가

가

1 ‘ ’

[竹]

가 ‘ (元山島)’가 .

가

‘ (怨山島)’ .8)

1993), 3~8

7) 1996 8 3 () (, 67 ,) (, 56

)

8) (, 83 , , : 2 101)

가

『 』

가 『 』

(, 85)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2 , 12 , 8

가

‘ (百濟政丞都彌之碑)’

(配貞烈夫人) .9) 가

도미 할아버지가 정승인데, 그 할매가 아주 세계 미인이라. 그런데 임금이 그 할매를 보고 욕심을 내는기라. 그러나 할아버지가 영 안 된다 말은 문하고, 집에 와서 문을 잠구고, 밥도 안먹고 죽을라고 마음을 먹고 있음게, 도미 할매가 자꾸 문앞에 와서 묻는기라. 그래서 이야기를 아니게, “마 개양소. 밥을 자시라.” 카거등.

그래가 할매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밥을 자시고 살아가고 있었어. 그래 살아가 있는데, 인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긴데, 그 배 선장 입에서 말이 나와 가지고, “임금이 도미 할매한테 속아서, 몸종을 옷을 잘 입히고 단장을 해 가지고 가서, 몸종하고 잤다.” 이런 말이 나 가지고, 임금이 정승 할아버지 잡아다가 양 눈을 빼고, 바다에 띄워뺏어요.

그래 그 할매가 “내 얼굴 때문에 영감님이 돌아갔다.” 이러카고 떠나갔어요. 그래갖고 저 천성이라 하는 그를 가 가지고 그 할매와 할아버지하고 만내가 얘기를 했다 캐요. 살아가지고. 그라고 명산을 찾았더니, 여 와서 못치스요. 그 할아버지가 내외간에 합장묘가 있습니다. 천성이라는 데가 청간면 천성포라 카는데, 그가 가덕 섬입니다.¹⁰⁾

9) 『 』 가 .
 ‘史官有詩曰’ 『 』
 ‘丙子 三月 日’ 1936

10) : 1996. 10. 25. 3 50

가 (天城) 가 가
가 가 가
(11)

1930 가
,12)

가 가 가
『 』

2.

1316(3) 1388(14)
『 (高麗史)』 「 (列傳)」 113
(楊廣道都巡問使)
, 1352(1) (趙日新) (安
祐), (崔源) (護軍) 가 3
(大護軍)
(牧胡)
(八道都統使)가 가
(回軍) 가
(清廉潔白)
『 (擇里志)』

: (, 82 , ,)
: 2 214
: ()

11) , 25 .
12) , 27 .

(崔瑩祠)

가

300

13)

가

『

』

가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의 생가가 여기서 북쪽으로 5km쯤 떨어진 홍성군 흥북면 노은리인데, 최영 장군은 이 철마산에 와서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무술을 연마하곤 하였답니다.

하루는 최영 장군이 이 철마산에 와서 홍성읍 뒤에 있는 백월산을 향하여 활을 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금말[金馬]에게 말했대유.

“네가 이 화살보다 더 빨리 달리면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이 화살보다 늦게 달리면 애석하지만, 너의 목을 베겠다.”

최영 장군은 말 위에서 백월산을 향하여 활을 쏘 다음, 있는 힘을 다하여 금마들을 달렸답니다. 장군은 이 은행나무가 있는 곳까지 달려와서 화살을 찾아보았으나, 화살이 보이지 않더라유. 보이지 않으니까, 화살이 더 먼저 날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머금고 말의 목을 베었습니다. 말의 목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화살이 ‘쉬익-’ 소리를 내며 날아오더랍니다.

최영 장군은 자기의 실수로 사랑하던 말을 처형한 것을 애석해 하며 말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이 은행나무 있는 곳에서 홍성읍 쪽으로 약 3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금마총’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최영 장군의 애마였던 ‘금말’이 묻힌 곳을 ‘금마총(金馬塚)’이라 하고, 활을 쏘았던 산을 철마산이라고 하였답니다. 이곳의 지명을 ‘금마(金馬)’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¹⁴⁾

500

가

가

가 300

가

(愛馬)

[金馬]

(金馬塚)

가

13) 『...』 (: , 1971), 155

14) : 1995. 7. 17. 12 : 40~43.

: (, 57 ,)
: 298

가

가

」 .15) 「 (馳馬臺)」
 ,16) 가

가 , , ,

3. .

가 (衙門) 가
 가 , ‘ ’가
 102 ‘ ’ 가 2m,
 45cm, 가 25cm (李成萬) .
 (李淳) (碑文) 173

1418(태종 18)년 11월 5일 지신사(知申事) 하연(河演)이 ‘충청도 대흥현 호장 이성만 과 이순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봄과 가을에는 술과 떡 을 하여 부모님이 사랑하는 친척들과 나누어 먹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렸습니 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형은 어머니의 묘소를 지키고, 동생은 아버지의 묘소를 지켰습니 다. 이들은 아침에는 형이 동생의 집에 가고, 저녁에는 동생이 형의 집에 가서 조석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국 한 그릇이 있어도 함께 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니, 상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주청하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이들을 표창하여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모범이 되도록 하라.’고 하였다. 1497(연산군 3)년 2월에 이 비를 세운다.

가 ‘ ’ ,
 . 1972
 가

, 가
 가 (水沒) , 1974
 가 , 가

15) , (: , 2001), 45~46 .
 16) , (: , 1958), 458~459 .

1993

『 』 20 . 이 . 가 . 가 . 가 .
 “ ” 「 」
 「 」 가 가 가

옛날에 이곳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윗들거리(지금의 대흥면 상중리)에 살고, 동생은 오리골(지금의 대흥면 월송리)에 살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풍년이 들어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형은 동생이 새살림을 냈으니 소용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생에게 많은 벼를 주려 하였답니다. 그러나 동생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있는 형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여서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밤에 형이 지게로 벼 가마를 저다가 몰래 동생의 집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도 벼 가마를 몰래 형의 집에 저다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형이 벼 가마를 세어 보니, 지난밤에 분명히 동생의 집에 저다 놓았는데, 벼 가마 수가 그대로였습니다. 동생 역시 벼 가마를 세어 보니, 그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밤마다 형은 동생의 집에, 동생은 형의 집에 벼 가마를 저다 놓곤 하였습니다.

어느 어두운 날 밤, 전날과 같이 각각 벼 가마를 지고 가던 형제는 개뱅이다리에서 서로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벼 가마가 줄지 않은 까닭을 알았다고 합니다.¹⁷⁾

「 」
 7
 , 5 . 8 · 15

가

17) : 1995. 7. 17. 10:10~10:15

: (, 55 ,)

: 76-4

: 가 ,
 가

가
가

4.

1517(12) (釋) 1578(11)
(馨仲), (土亭), (文康) (韓山) ,
(牧隱) (稿) . 1713(39) 가 (追贈) .
『 』 .24)
(李之蕃)

(經傳) , (史書) 가(諸子百家)
가

(氣概) (度量) , 가
(竹笠) , (名望)
(節義)가 (李珥), (曹植), (成渾), (趙憲)
가

가 가 (家率)
가 (禍)가 .25) (喪中)
가 (彗星) , 10 가

10 .26)
『 』 “
(賢否) (吉凶) , 가
.”27)
56 1573(6) , 6

57 1574(7) ,

24) 6 6 5 , 6 7 6 6 5 1 , 7 8 11 ,
11 7 1 . CD-ROM 2 (: , 1997).

CD-ROM .

25) 11 7 1 .

26) 30 11 27 .

27) 11 7 1 .

(時弊) (晩年)
 (土亭) (李之菡) (奇智) (神術) 가
 가 ,28)
 가

가. 앞일을 미리 아는 능력을 지닌 사람

『 가 가 ,

토정 선생은 수원 근방의 육지가 변하여 바다가 될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 곳 주민들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토정은 하는 수 없이 혼자 그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쉬었다. 그 때 소금짐을 진 노인이 따라오라고 하므로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노인은 산 중턱에 이르러 소금지계를 받쳐 놓으며 산이 바다가 되는 것을 구경하자고 하였다. 그 노인은 산신령이었고, 바다가 된 것은 지계 작대기로 꽃은 곳까지였다고 한다.²⁹⁾

5

가 ,

.30)

(鐵馬)가 , 가 가
 , 가 가 , (冊曆)

나.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지닌 사람

(知人之鑑)

28) , “ , ” “ , ”
 (: , 2002).
 29) , 4- -(: , 2002), 222 .
 30) 4-5()(: , 1984), 684~687 .

가 , 가 , 가 36
 (漢陰) (李德馨) .31)
 가 (逆心) ,
 .32)

가

다. 신술(神術)을 부리는 사람

(縮地法)

“

가

가

.”33) 『

』

이 토정 선생이 산길을 가는데, 한 종이 길가에 앉아 이를 잡으면서 쉬어가라고 하였다. 토정이 종과 이야기할 때 종이 토정의 손을 잡는데 보니, 손에 털이 있었다. 토정이 호랑이가 변신하였음을 알아차리고 손목을 잡으니, 호랑이가 재주를 부려 손목을 뺀 뒤에 호랑이로 변신하여 달려들었다. 토정은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축지법을 쓰며 천천히 걸었다.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토정을 잡으려고 높은 산에서 뛰다가 굴러 떨어져 죽고 말았다.³⁴⁾

가

가

가

,

.35) ,

31) (記文叢話) (東野彙集). , 1 (: , 1988), 273~274 .

32) 4-5(: , 1984), 84~87 .

33) 11 7 1 .

34) , (: , 1999), 94~95 .

35) , 101~104 .

라. 백성을 잘 보살핀 사람

이지함은 유랑민이 떨어진 옷을 입고 걸식하는 것을 가엾게 여겼다. 그는 큰 집을 지어 그곳에 살도록 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 중 하나를 손수 업으로 삼아 살도록 하였는데, 직접 대면하여 깨우쳐 주지 않음이 없었다.

그는 각 사람을 이끌어 의식을 주선하여 주었다. 능력 있는 자에게는 미투리를 삼도록 하고 친히 감독하여 하루에 10결레씩 만들어 팔게 하였는데, 이로써 의식이 풍족해졌다. 그런데 일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말없이 도망하는 자들도 많았다.³⁷⁾

토정이 아산 현감을 할 때에는 걸인을 보살피는 걸인청(乞人廳)을 두고, 걸인들이 살 집을 마련한 뒤에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³⁸⁾

가

,

.

, (洑)

.39)

가 ,

마. 검소하며 절제력이 강한 사람

(野人)

가 『 (於于野談)』, 『 (東野彙輯)』

토정이 아산 현감으로 오니, 도임 상에 물고기 반찬을 올려놓았는데 맛이 좋았다. 물고기를 어디서 잡았느냐고 물으니 고기를 잡는 못이 있는데, 아무도 못 잡게 하고 현감

36) (: , 1975), 733~734 .
 37) , (: , 1996), 295 .
 38) , (: , 1996), 361~362 .
 39) , 221 .

이 올 때 도입 상에만 쓴다고 하였다.

3일 후에 토정은 고기를 여럿이 먹어야지 현감만 먹을 수 없다면서 못을 메우라고 하였다. 아랫사람들은 현감이 시키는 일이라 어길 수 없어 못을 메우고 논을 만들었다. 그 후, 어떤 현감도 그 물고기를 볼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 못 터가 있다.⁴⁰⁾

(孤靑) (徐起) 가 (南溟) (曹植)

.41)

바. 운명에 순응한 사람

토정이 부모를 장사지낼 때 뒷자리를 보니 자손 중에 재상이 두 명 나오는데, 막내아들은 불길하였다. 막내인 토정은 자신이 그 재난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대로 맞이하였다.

후에 형의 아들인 산해(山海)와 산보(山甫)의 관이 1품에 이르렀는데도, 지함의 아들은 현달(顯達)하지 못하였다.⁴²⁾

가 『 』 가

,43)

이토정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관상을 보니, 밥을 얻어먹어야 살지 잘 살면 단명할 것 같았다. 그래서 딸을 거지와 혼인시킨 뒤 움막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밥을 빌어

40) 7-15(: , 1987), 544~545 .
41) (東稗洛誦). (2)(: , 1992), 546~547 .
(靑野談藪). (2)(: , 1992), 624 .
42) , , 292~294 .
43) , , 98~100 .

먹고 살게 했다.

토정은 자기 딸이 밥을 구걸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만들어 주고는 그것으로 점을 치며 살게 했다. 딸이 그 책으로 보아준 점이 백발백중으로 들어맞았다. 그러고 보니, 딸이 금새 부자가 되어 곧 죽을 것 같았다.

토정은 『토정비결』을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중간 중간을 틀리도록 고쳐 놓았다. 그래서 지금 『토정비결』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⁴⁴⁾

『 토정비결 』 가

가 (逆心)
(除毒)

.45)

5.

17 (1691) 32 (1756)

가 가

.46) 1723 (3) (藝文館檢閱)

(世子侍講院說書) · 1724 가

, 1727 (3) 가

(丁未換局) (司書)

(嶺南別遣御使) 가

1731 (7) , 1734 (10)

, 1737 (13) 가

. 1741 (17) 가 , (賑恤使)가 (關西)

15,000 , 1742

(18) 가 , 1745 (21)

1749 (25) 가 , (良役) 가

(王世孫) (琬, 懿昭) (師傅), 가

44) 7-8(: , 1983), 990~993 .

45) (: , 1999), 34~36 .

46) CD-ROM 3 .

(姓氏) 1(: , 1983).

(: , 1979).

8(, , 1993).

(知敦寧), 1756 (32) ,
 (忠憲) (祠堂) (墓)가
 가
 ,47) 가

가. 정의의 심판자

(懲治)

옛날에 가난한 양반 이 진사가 홀로된 며느리와 살았다. 어느 날, 며느리 혼자 집에 있는데, 젊은 중이 동냥을 왔다가 그녀의 미모에 마음이 끌려 정을 통하려 하였다. 그녀가 중의 요구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중은 몸에 지니고 있던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 얼마 후, 이 진사가 집에 돌아와 며느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뒤에 몸에 박힌 칼을 빼려고 하는데, 이웃집 노파가 와서 이를 보고, “이 진사가 며느리를 겁탈하려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 칼로 찔러 죽였다.”고 관가에 신고하였다. 그래서 이 진사는 며느리를 죽인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 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 고을 가까이 오다가 한 중을 만났는데, 수상쩍은 데가 있었다. 박 어사가 그 중에게 전에 예쁜 처자를 만나 욕보인 적이 있다고 꾸며서 말하자, 중은 자기도 시주를 얻으러 갔다가 주인 여자의 미모에 반하여 겁탈하려다가 말을 듣지 않아 죽인 일이 있다고 하였다.

박 어사가 관가로 가서 죄수들의 죄목을 살펴보니,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며느리를 죽인 양반이 있었다. 박 어사가 보관된 증거품을 살펴보니, 중들이 쓰는 장도칼이었다. 박 어사가 길에서 만난 중이 거처한다는 절을 찾아가 그 칼의 임자를 물으니, 길에서 만난 중의 것이라고 하였다. 박 어사는 그 중을 잡아 가두고, 억울한 이 진사를 풀어주었다.⁴⁸⁾

(官長)

47) , “ (: , 2002) .

48) 4-4()(: , 1982), 297 . , 1-7,944 . 2-4, 364 . 3-3, 810 . 5-5, 601 . 10 .

(放免)

「 』49) (官權) 가
(神將) 가 「 』50) 「
』51)

나. 백성의 원조자

가

강원도 산간 지방에 사는 효부가 생선을 살 돈이 없자, 생선을 자꾸 만져 비늘과 비린 맛을 손에 묻힌 뒤에 그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였다. 이 국을 맛본 시아버지는 맛있다고 좋아하였으나, 시어머니는 그 손을 간장 항아리에 씻어 온 식구가 1년 내내 생선 맛을 보게 하지 않고, 한 끼에 다 먹게 하였다고 꾸중하며 나가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웃 사람들은 그 손을 대동우물에 씻어 온 동네 사람이 생선 맛을 보게 하지 않았으니, 내쫓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녀가 울고 있으니까, 남편도 따라 울었다.

그 때 박 어사가 이곳을 순행하다가 우는 까닭을 물으므로, 그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그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움을 안 박 어사는 강원도 감사에게 진휼미(賑恤米)를 나누어 주도록 하고, 그녀에게는 특별 포상을 하였다.⁵²⁾

「 』53) 가 가
가 , 가

제 아내가 함께 일하다가 점심밥을 지으러 집에 가 보니, 저의 부모님이 방에서 낮거리를 하고 계시더군요. 아내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일을 마친 뒤에 기운이 빠지고 시

49) 7-1, 209~218 . 가 8 .
50) 7-7, 66~74 .
51) 7-3, 697~791 .
52) 1-1, 383~386 .
53) 1-1, 87~89 . 2-2, 763~764 .

장할 것을 생각하여 닭을 잡아 고아드린 뒤에 밥을 지어서 가지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부모님을 위하는 정이 깊은 것을 알고 고마워서 절을 하였습니다.

다. 도움을 받는 사람

가

(神異者)

박문수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어느 진사 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는 그 집에서 묵는 동안 진사의 아들이 장가간 첫날밤에 실종되고, 그 며느리는 간부(姦夫)와 정을 통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수중동(水中洞)에 산다는 초립동(草笠童)을 만났는데, 과거를 보러 갔다가 날짜를 대지 못해 되돌아온다고 하였다. 초립동은 시제(詩題)가 '낙조(落照)'였다고 하면서, 장원한 사람이 지었다는 글귀를 가르쳐 주었다. 그가 한양에 도착하여 알아보니, 과거 시험이 이틀 후였다. 그가 시험장에 가서 시제를 보니, 초립동의 말대로 '낙조'였다. 그는 초립동이 일러준 글귀에 끝 구절을 보태어서 제출하였는데, 장원으로 뽑혀 암행어사가 되었다.

암행어사가 된 그는 진사의 집으로 가서 진사의 며느리와 간부의 자백을 받아 진사 아들 실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진사 아들의 시체를 연못에서 찾아 장사지내게 하였다.⁵⁴⁾

가

,55)

「56)

54) 5-3, 555~561 .
 55) 1-3, 177 . 1-4, 340 . 2-2, 731 . 6-4, 180 .
 56) (: , 1999), 150~155 .

가 (橫厄)

가 가

가 . 가

라. 평범한 사람

가

박 어사가 순행(巡行) 중 비를 만나 원두막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다. 그는 원두막을 지키는 처녀를 보고, 성욕이 일어 그녀와 관계하였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아 길렀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랐는데, 점쟁이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찾았다.⁵⁷⁾

가

가 , , , , , .
.58)

가

,59)

.60)

57) 5-7, 56 .
58) 1-7, 502 . 4-5. 819 . 5-7, 56~58 . 6-10, 37 .
7-3, 701 . 7-18, 496 . 8-13, 545 .
59) 1-1, 150~154 . 2-1, 273~275 .
60) 2-1, 273~275 .

마. 지혜가 부족한 사람

가

박문수 어사가 길을 가다가 쫓기는 여인이 콩밭에 숨는 것을 보았다. 뒤쫓아온 남자가 칼을 들이대며 여인이 어디에 숨었느냐고 물었다. 박 어사가 숨은 곳을 가르쳐 주자, 그 남자는 여인을 찾아 죽였다.

박 어사가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일하는 아이에게 왜 키가 그렇게 크냐고 말을 걸자, 그 아이는 “수숫대는 1년 자랐어도 나보다도 크고, 박문수보다도 크다.”고 하였다. 박 어사는 그 아이의 지혜가 뛰어남을 보고, 쫓기는 여인이 죽은 일을 말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었을까를 물었다. 아이는 장님 흉내를 냈으면 됐을 것이라고 하였다.

박 어사가 아이의 집에 가서 자면서 똥을 누어 자는 아이의 바짓가랑이에 넣어놓았는데, 아이는 똥가래의 굵기가 아이의 것이 아니라며 박문수의 짓임을 알아냈다.

박 어사는 중국 천자가 낸 과제를 풀지 못해 근심하다가 그 아이에게 도움을 청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⁶¹⁾

가

가

가

박문수가 대대로 효자와 열녀가 많기로 소문난 집에 가서 목어가기를 청했다. 그 집 주인인 소년은 박 어사를 환대하며, 벽장 안에 둔 보검을 자랑삼아 보여주고, 별당에는 홀로된 형수가 거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날 밤, 소년이 외출한 뒤에 박 어사는 후원을 거닐다가 외간 남자가 별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남녀의 부정한 행동을 보고 분노를 느낀 박 어사는 벽장 안의 보검으로 남녀를 죽였다. 밤늦게 돌아와 변고를 확인한 소년은 형수가 몰래 들어온 외간 남자에게 정절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결하였다고 하였다. 소년은 형수의 행동을 널리 퍼뜨린 후 열녀문을 세웠다.

몇 년 후에 박 어사가 그 집에 다시 찾아갔는데, 그 날 밤에 열녀문에 불이 나서 모두 타 버렸다.⁶²⁾

61) 6-4, 392~395 .

62) 4-4, 292~297 . 2-5, 468~450 .

(幫助)

가

바.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람

(地術)

」63)

가

(神病)

가

가

」64)

가

(敵饗)

가

가

가

」65)

가

가

가

가

(制御)

6. (卜僮)

(卜僮)

1410

(涇龍)

1409(9)

(遺逸)

. 1414 (14) (掌

63) , “ , ” 9(: , 1998), 198~200 .

64) 7-3, 580~584 .

65) 6-11, 510~511 .

令) . 2
 1456 47 (久庵) (旌門)
 2 1676
 46 1770
 (享祀)
 5km
 ‘(誠孝閣)’ ‘(孝子掌令卜儻之里)’
 (久菴先生追慕碑)가
 100m

조선 태종 때에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여수동에서 태어나신 구암(久菴) 복한(卜儻) 선생님은 사헌부 장령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기 전에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사양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와서 살면 되지 않느냐?”

고 하여 서울로 모시고 올라가 사헌부 장령을 하며 사셨는데, 학문이 깊고 효성이 지극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년을 사신 뒤에 선생님은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하여 사헌부 장령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셨답니다.

선생님은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만 전념을 하였는데, 아버지가 병이 나셨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목욕 후에 하늘에 기도하고, 뒷동네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약을 다려 드리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샘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선생님이 자고 일어나 보니, 집 앞에서 물이 웅숭음쳐 오르더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물을 떠다가 약을 다려 드리곤 하였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의 효성이 지극하여 하룻밤 사이에 샘물이 솟아올랐다 하여 이 샘을 ‘효자샘[孝子泉]’이라고 하였답니다.

선생님의 아버지는 병이 나아 얼마를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어머니가 또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답니다. 여러 가지 약을 구하여 드렸지만, 별 효험이 없었대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모쟁이(송어의 새끼)’가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모쟁이를 구할 수가 없어 애를 쓰다가 가까이 있는 태성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답니다. 며칠 동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는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효자샘에 가 보아라. 모쟁이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산을 내려와 효자샘에 가보니, 정말 모쟁이가 헤엄쳐 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모쟁이를 그물로 건져다가 꼭 고아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는 모쟁이를 잡수신 뒤에 병이 나아답니다.

그 뒤로 이 샘을 ‘효자샘’ 또는 ‘모쟁이샘’이라고 부른답니다.⁶⁶⁾

3

가 가 가 200~300

구암 선생은 세종 32년인 1450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묘 옆에 여막(廬幕, 무덤 가까이에 짓고 상제가 거처하는 초가)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3년간 피눈물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람을 대하여도 입을 열어 웃지 않았다.

구암 선생은 3년간 시묘살이를 한 뒤에도 매일 세 번씩 부친 산소에 성묘를 하였는데, 선생이 성묘 길에 나서는 폭우가 멈추기도 하고, 대설(大雪)이 그치기도 하였다고 한다. 구암 선생이 산소 앞 잡초를 뽑을 때에는 까마귀와 까치가 떼를 지어 날아와 풀을 쪼아 뽑기도 하였다고 한다.

단종 원년인 1453년에 조정에서는 당시에 효행이 뛰어난 열 사람의 효행 내용을 각각 적은 효자첩을 임금께 올렸다. 임금이 이를 차례로 읽은 뒤에 옥새를 찍었는데, 다른 사람의 효자첩에는 옥새가 찍히지 않고 맨 밑에 있는 구암 선생의 효자첩에만 옥새가 선명하게 찍혔다. 이를 본 임금이 놀라며 말했다.

“이런 영검스런 일이 있는가! 이를 모두 물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물에 넣으니, 구암 선생의 효자첩에 찍힌 옥새의 모양이 더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에까지 퍼지게 되었는데, 중국 황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효자는 조선의 효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서 보기 드문 효자이다.”

하고, 국서를 보내어 찬양하였다.

66) : 1995. 7. 17. 12 : 35~40.

: (, 57 ,)

: 298

:

:

:

:

:

:

:

:

:

:

:

그로부터 5년쯤 뒤에 조정에서는 선생의 고향인 여수동 입구에 선생의 효성을 기리는 정문(旌門)과 비(碑)를 세워 표창하고, 효자의 귀감으로 삼았다.

550

가

(郡)

1977

7. (李長新)

(李長新)

(仲允),

(薛蘿翁)

(贈) 가

(嘉義大夫)

(戶曹參判)

(五衛都摠府 副摠管)

가

(淸州李氏世孝村)'

가

7km

가 가

1km

가

' 가

(贈 嘉義大夫

戶曹參判淸州李公諱長新孝行碑)'가

'가

(孝行碑銘)'

이(李) 자, 장(長) 자, 신(新)자 할아버지가 내 9대조 할아버지신디, 그 양반이 원래에 동네 어른, 집안 어른을 잘 모시구, 효성이 지극했다느면 그리유. 그런디, 그 아버지가 병환으로 누워 계신디, 동지선달인데, 배를 잡수시구, 잉어를 잡수시야 낫것다구 그래유. 누가 그 소리를 했는지는 확실히 몰러두. 그 말씀을 듣고서, 시방 같으면야 다 있지만, 그 때 동지선달에 배가 있을 때유? 또 동지선달에 얼음이 팡팡 얼었는데, 잉어를 잡을 수도 없는 거구. 시방 같으면 모르지만.

이 양반이 배를 구하러 다니는디, 배나무를 다 쫓아다녀도 배가 있느냐 말이유. 몇 가운데(곳) 쫓아다니면서 배나무를 살펴보고 그러는데, 워디 한 가운데를 가보니까, 배나무 가지에 거미줄이 이렇게 [두 손을 가까이 모아 보이며] 폭 싸여 있더라유. 가쟁이(가지) 속에. 그래서 올라가서 거미줄을 걷어치우고 보니까, 과연 배가 맺혀 있더라는 거에유. 그래서 그 배를 따다가 드리구.

그 다음에 잉어를 잡으러 다니는데, 시방마냥(지금처럼) 살 데가 있나? 내 손으로 꼭 잡아야 할 텐디, 내꼴(내)에 가서, 동지선달에 얼음이 잔뜩 얼은 데 가서 얼음을 깨구서, 잉어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효심이 지극해서 그런지, 잉어가 한 마리 벌떡 나오더라는 거여. 얼음 구녕 뚫은 위로.그걸 갖다 드렸는데, 많은 효험이 있었대요.

그 소문이 널리 퍼졌대유. 그 때, 암행어사가 그 동네 가까이 와서 들으니까, 그런 말

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청주 이씨 세효촌(淸州李氏世孝村)’이라고 써 주고 갔대요. 지금 거기 서 있는 돌이 그 양반이 써 주고 간 돌이래요.

그 동네 이름이 본래 ‘사나물’, ‘석촌(錫村)’이었대유. 그런데 관에서 효자가 난 동네니 ‘효동(孝洞)’이라고 고치라고 해서, 그 때부터 효동이라고 부르대요. 그래서 리(里)이름도 효학리가 되고.⁶⁷⁾

가 , 가 . , 가 ‘ ’
 가 가
 가 (碑) ,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그것도 전설로 들은 것인데, 그 양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셔야 할 텐디, 지관을 모셔다가 자리를 보고해야 할 판인데, 상주가 꿈을 꾸니까, 호랑이가 현몽을 하여 ‘아무 데에다 무슨 좌향으로 묘를 써라.’고 해서 묘를 썼다는 이야기도 있구.

다른 하나는, 그 때는 대개 초빈(草殯, 사정에 따라 완전히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송장을 방안에 둘 수 없는 경우에 한 데나 또는 의지간에 관을 놓고 이영 같은 것으로 그위를 이어서 눈비를 가리게 하는 일)하고, 여막 짓고 조석으로 곡(哭)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곡하고 나서 여막에 가서 계신디, 호랑이가 와서 올라타라는 시늉을 해서 태우고 얼마를 가더니, 여기다 묘를 쓰라는 시늉을 해서, 거기다 묘를 썼다고 그래요. 그 자리가 참판공(이장신)의 뒤편인데, 효자비 있는 데서 논틀 건너 외딴집 뒷산에 있시유.⁶⁸⁾

, 가 . ,
 (異蹟) .
 (金有淵, 1819~1887, 19~ 24)

67) : 1995. 7. 18. 11
 : (, 76 , ,)

: 가
 : 가

68)

(異蹟談)

가

가

1.

가

(貞節)

14

『(三綱行實圖)』

「」,

「」

가

가

가

(貞節閣) 5.05

100

(影幀)

(貞節祠)

“

1993

69) () , 가 가 (靈物) 가 (孝行異蹟) (誠孝閣) (孝子掌令卜僮之里) (久菴先生追慕碑)가 100m 「 」가 가 (贈 嘉義大夫戶曹參判清州李公諱長新孝行碑)가 (孝行碑銘) (孝)

2.

가 가 (緣故性) 가 가 ? 가 (宣揚) (自矜心)

69) , “ ” (: , 1994), 164 .
 70) , “ ” (: , 2002), 25 .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鐵馬亭),
가 (異論)
가 가
가,
가,

